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인간 고통의 근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남이 고통 받고

남이 잘못하면 내가 고통 받으니

안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슬프다. 어떤 때는 화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운다. 마치 우리가 느낌의 흐름을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느낌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또 다른 느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명상을 수행합니다. 불교심리학에 대해서 가르치

김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치통 없이 모든 형상과 색깔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은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며, 일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못하게 하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책을 재봉하는 일, 정원에서 일하는 것, 시 쓰는 것, 걸기전의 수행, 그리고 아이들을

신 지각을 수행하면 출연히 당신은 매우 부유하게 되고 매우 행복하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인생을 즐기도록 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행복이 부여됩니다. 제발 그 행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중립적인 느낌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유쾌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선과 걸기전 안에서 그것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우

나 가능합니다. 앓는 것과 걷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앓지 않거나 걸지 않을 때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각은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연필을 바라볼 때, 당신이 그것을 감지하는데 그 연필 자체는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연필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와

산 뒤로 넘어갔습니다. 햇빛이 우리의 위치에 도달하는 데는 8분이 걸립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해를 이 현재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의 해를 바라볼 뿐입니다.

석양에 산보를 하다가 당신은 뱀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회전등을 비출 때 그것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각의 오류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화를 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 고통의 중요한 근원입니다.

어느 안개 낀 아침, 한 사람이 강물을 거슬러 보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보트를 보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라고 외쳤는데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형진

하나의 세계 II

옛날에 '일상'과 '확장'이라는 두 새가 살고 있었다. 이 새들은 물 밑을 투시할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새에게는 한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일상'이라는 새는 자신의 눈 아래 수직이 되는 곳 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확장'이라는 새는 수직이 되는 곳 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확장'이라는 새는 '일상'이라는 새보다 확장된 시야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상'이라는 새는 이를 알고 있었다.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굴절현상이 나타나지만, 빛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에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전 물리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일상'이라는 새가 보는 세계에 해당하며, 현대물리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확장'이라는 새가 보는 세계에 해당한다. 물론 '확장'이 보는 '일상'이 보는 세계를 그

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다. 그런 이유로 거시세계의 문제에 양자역학을 쓰지 않는 것이지, 세계가 양분되어서 양자역학을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일상'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 내에서 경험하는 세계이다. 우리의 인식은 이 경험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마치 뉴턴 역학의 신봉자들이 수백년 동안 뉴턴 역학의 세계관에 갇혀있었던 것과 같다.

지상에 최초의 생물이 나타난 이후 30억년 이상의 오랜 진화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의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세계, 우리의 의식세계가 형성되었으니, 일상의 시야에 갇혀 있었던 역사는 뉴턴 역학의 수백년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년이다. 이 30억년 동안 한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확장된 세계가 부처님이 펼쳐보이신 불법의 세계이다. 이 확장된

양자역학 '일상'에 갇혀 있던 사고 전환 불법의 세계가 30억년 한정시야 확장

안에 포함한다. 물리학을 말하면서 흔히 고전 물리학은 거시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역학은 거시세계 뿐만 아니라 미시세계까지 다룰 수 있는 학문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거시세계로 한정되었던 시야가 현대물리학에 와서 미시세계로 까지 확장되게 된다. 이 확장된 시야에서 보면 일상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소견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비유하자면 '확장'이라는 새가 보는 굴절현상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역학 뉴턴역학이 기술하는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확장'이라는 새가 보는 굴절현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었을 뿐이다. 마치 핀셋만으로는 풀건을 들어 올리다가 기종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거운 물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작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연필을 들어올리려고 기종기를 쓴다거나 거시세계의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에 양자역학을 쓴다면, 상당히 복

세계에서는 일상 세계에서 비롯된 소견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정경이 전개된다. 불법의 세계가 우리 일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두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불법의 세계, 열반의 세계, 반야의 세계, 공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 생명의 세계, 미혹의 세계, 색의 세계를 그 안에 포함한다.

공의 세계를 의식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30억년이라는 업에 의해 형성된 근원적 무지, 좁은 소견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안목에서 보면 굴절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오직 하나 공의 세계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세계일 뿐이다. 굴절현상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물에서 수직으로 보면 굴절현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 세계는 근본적으로 공이지만 아주 특수하게 색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 색의 세계에 고정된 좁은 시야의 눈은 보다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30억년 동안 그것만 보았으므로 그것은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안다. 불법을 모르는 중생은 '일상'의 새와 같다.

(고려대 교수·물리학자)

실체와 마음의 감지 하나될때 살아있는 수행 설거지 하면서도 행위의식하면 제대로된 삶

는 아비달마(Abhidharma) 학파의 글에서는 그러한 느낌들은 세 가지 종류, 즉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 그리고 중립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밟을 때 우리는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참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라든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유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앉아있을 때에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비달마 학파의 문헌도 읽어보고 아비달마 불교를 수행해 왔는데도, 그러한 분석이 옳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소위 중립적인 느낌은 매우 유쾌합니다. 당신이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서 호흡수를 하며 웃음을 띠울 때 당신은 매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앉아서 편안한 느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나는 매우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직업이 유쾌합니다.

유쾌와 불쾌는 우리의 관점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사람은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그가 갑자기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적적인 선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 형상과 빛깔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우리들은 자주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행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 나뭇잎과 꽃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여부는 우리의 지각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치통을 앓을 때는 치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통이 없는 데도 당신은 때때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리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며, 모든 생물(生物)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불교사원의 선방(禪房) 밖에 걸린 현판에는 네 줄로 된 글이 새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날짜와 시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날과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매 순간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과 걸기전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 중에도 우리는 수행합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

“지각이 올바르면 감정에 끌리지않고 만사를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나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은 빛나는 별을 보고 그것을 향해 웃음을 띠웁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당신에게 그 별은 그곳에서 이미 천만년 전에 사라졌다 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우 아름다운 환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해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여겨 매우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해는 이미 8분 전에

그 보트는 그에게 부딪혀 그의 보트까지 가리양게 되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그 보트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다. 그 보트는 저절로 풀어져서 아래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화가 사라지고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올바르게 없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킵니다.

불교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나쁜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되도록 만사를 깊게 바라볼 수 있게 가르칩니다.

1969년, 월북을 기도하다 휴전선에서 사살된 한 젊은 스님의 충격적 구도소설!



이·홍·주·스·님·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196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바짝 여윈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철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했던 홍주 스님의 걸방 속에는 자신의 소설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홍주 스님은 왜 월북하려 했을까? 스님은 왜 자신의 소설 <下山> 만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금서로 묶였던 문제의 소설 <下山>은 28년 만에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 화제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 작가적 측면에선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이 어슬렁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진 문제작! - 1967년 / 시인 김지하
 -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파된 본격적인 불교 진위 문학! - 1967년 / 작가 손호리
 - 스님들과 신사의 생생하고 한정감 있는 묘사력이나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독자를 사로잡는 구도소설! - 1995년 / 문학평론가 임형영
 - 구도승의 타락의 고뇌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한국 불교에 경종을 울린 소설! - 1995년 5월 28일 / 한국일보

불지사 편집부 (02) 277-2676
영업부 (02) 263-1941

4*6판 / 양장본 / 248쪽 / 값 5,5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월 1권(금언)

도서출판 한빛다비드

전화: 551-8474~5
우체국: 013805-0016528
국민은행: 067-0170-091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